



[낙농경영] 美, 비료 가격 폭등에 생산비 절감 나서

- 옥수수 재배 농가, 질소 비료 대신 젖소 분뇨 활용



미국에서 비료 가격이 폭등하며 작물 재배농가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젖소 분뇨를 비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 농업응용 경제학과 교수에 따르면, 작물 재배농가들이 낙농가로부터 분뇨를 공급받아 천연 비료로 사용하면서 생산비 상승을 상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질소, 인산염 및 칼륨 비료 가격이 5% 이상 인상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말까지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면서 위스콘신주 옥수수 재배 농가들은 인근 목장으로부터 공급받은 분뇨로 질소 비료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로 젖소 분뇨는 옥수수를 비롯해 땅 위에서 재배하는 텃밭 작물에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식품안전법에 따라 감자 등 기타 땅 속에서 재배되는 뿌리 작물에는 사용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출처 : wisfarmer.com, 1월 25일 >

[소비동향] 아태지역, 유제품 등 단백질 식품 소비 증가

-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 고조...특히 유단백질에 대한 선호도 높아



아태지역 소비자들의 건강 및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제품 등 단백질 식품 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식품전문회사인 케리그룹이 12개국 약 6,300명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제품 등 동물성 및 식물성 단백질에 대한 인식 및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단백질 식품에 대한 선호도 및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아침식사를 통해 단백질을 보충하고 있으며, 우유 및 유제품 등 영양 음료를 비롯해 그래놀라, 시리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성 단백질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유단백질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 지역 소비자 중 60%가 유단백질이 식물성 대비 영양이 풍부하고 품질과 맛이 더 우수하다고 인식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관계자는 단백질 식음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출처 : asiafoodjournal.com, 1월 24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